

중앙공원 특례개발, 토지주 집단 반발

비대위 항의 집회 “낮은 보상이 법적 대응 불사” 광주시 “공원 난개발 막기위해 특례개발 불가피”

“건설업체만 배 불리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 중단하라.”
잇단 잡음이 빌미가 돼 결국 지주들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왔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잡음이 지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공원 사유지 보상 예정가격’과 맞물리면서 집단 반발을 증폭시킨 모양새다.
중앙공원 지주 6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공원 토지주 비대위’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

가 공원 토지주들의 땅을 헐갈에 사들여 평당 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해 수천억원을 챙기는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왜 지난 40년간 공원 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토지주들의 일방적 희생을 거름 삼아 공원 부지를 지키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1999년 10월)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20년 넘도록 공원시설로만 지정된 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그 결정이 자동효력이 된다.

중앙공원의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300만㎡(약 100만평)의 부지를 민간(건설사)이 사들여 10% 부지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90%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원 구역 해제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06년 ‘공원 녹지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로, 토지주들은 “특례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시세는 평당 100~500만원인데, 공시지가(15만원 안팎) 수준으로 강제 수용당하게 된다”며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2번째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주시는 2020년 6월 31일부로 중앙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풀린다

는 것을 20년 전 현재 결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간 수수방관만 했다”며 “그런데도 단 1년을 남겨두고 건설사에만 특례가 돌아가고, 아파트 공급 과잉이 초래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경돈 중앙공원 토지주 비대위 총무는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검토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반발하더라도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특례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말 공원시설 해제 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진행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청문 마무리 ‘조업정지 10일’ 놓고 향후 결과 관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도 간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한 환경당국이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데 따른 청문 절차가 이날 전남도 청에서 열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고로(용광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여기에 반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청문 절차를 밟았다.
불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인위적’으로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적법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포스코 등 업계는 고로는 2~3개월 간격으로 쇠물 생산을 중단하는 ‘휴공’(休

風)을 하는데 고로 폭발 우려가 있어 불리더를 일시 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도 “고로 정비 과정에 발생하는 작업”으로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전남도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문주제자의 의견을 작성, 1주일 내로 행정처분을 내린 담당부서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는 청문 의견을 반영, 행정처분 절차를 내린다는 방침으로, 조업 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업체측과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37조)은 ‘조업정지처분을 같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체측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면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포스코측은 현대제철과 달리,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한 바 없다. 때문에 환경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행정처분에 불응,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원년의 해 선포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식이 18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과 장석용 전남교육감, 최일 동신대 총장, 도민추진위원회 위원, 대학생, 시·군 담당자 등 참석자들이 새천년 인재육성 원년의 해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2022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용역 착수

전남도가 ‘스마트 의료·융합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18일 대통령 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 의학 산업 벨트 구축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사업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의 ‘최고수준 의료-질 높은 의료-편안한 치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사업을 실현하고 2022년까지 전남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화순백신특구 등 전남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바이오헬스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면역세포치료, 항노화 등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생산·치료·요양 기능까지 아우른 집적단지를 조성해 대구나 충북 오송 등 다른 사·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차별화에 나선 방침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사는 보고회에서 “213억원 규모의 국가백신제품화지원센터 유치가 성공하고, 460억원 규모의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유치가 가시화하는 등 바이오산업 제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산업 R&D를 선점해 전남이 주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첨단 바이오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상반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함으로써 조기에 국가전략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본격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여수·순천·보성서 이순신 리더십 배워요” ‘명량! 이순신 리더십캠프’ 수도권 등서 880여명 신청

전남도는 ‘명량! 이순신 리더십캠프’를 여수·보성 등 도내 동부권에서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명량! 이순신 리더십캠프’는 도내 문화유산과 이순신 유적지 등을 활용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조선 수군을 재건해 세계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 대승을 이끈 이순신 장군과 전남 민초들의 희생·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울돌목이 있는 해남과 진도에서만 열렸지만 올해는 보성·순천·여수 지역 이순신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체험캠프를 확대했다.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지난 3월 하순 전국 학교 단체로부터 참가 희망을 접수했다. 수도권과 충남, 부산, 경북, 대구 등 25개 단체 880여 명이 신청했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3년 연속 문화재청 지역 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의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순신 리더십 특강, 유적지 답사, 충무공 체험, 문화 배우기 등을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문화유산과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청소년의 인성을 함양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교육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관광지 어디든 공공와이파이 터진다 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 선정... 도내 470곳 구축

전남도가 올해까지 도내 관광지 470곳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18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년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년 7기 계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역 모든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목표로 2017년부터 관광지 66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206개소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11억원, KT 부담 10억원 등 모두 24억원을 들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와

문화 공간에 와이파이 시설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여객항까지 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관광지 홍보가 이뤄져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석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이번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샵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환전문

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제12회 영천한마당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스를 개교 12주년 기념

영천 한마당 행사에 초청합니다.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11:00~18:00
- 장 소 |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스
- 대 상 | 동문, 노회원, 지역주민 등 누구나
- 강 사 | 손영진(CCM 가수)

● 프로그램 ●

- 1부 예배, 찬양, 오픈마켓, 보물찾기
- 2부 특별찬양, 간증, 음악연주 등 다양한 무대
- 3부 미니 체육대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문의 : 061-381-0000/1365

학장 이원수 박사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스
(기독교 중등교육 대안학교)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